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1서 2:12-17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가 246장 / 나 기나안 땅 귀한 성에 (통일찬송 211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김훈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주께 가오니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최내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민수기 1:1-46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오늘의 찬양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은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보혈을 다 쏟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슬픔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힘입니다.

성경은 교회, 즉 성도의 가치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보혈을 흘려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고귀 합니다. 땅 위에 있는 구원받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4)고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신령하고 참된 기쁨이 넘치 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기도

"분주한 연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서 형제를 위해 사랑을 베풀다고 하면서 마음 속에는 평안과 안식 대신 분주함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를 쓸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이런기성양은 자는 영혼은 자는 영혼은 자는 영혼은 자는 영혼은 자는 영혼은"

장영 16 차 9차

선교소식

필리핀 바기오에서 김승곤/송현주 선교사 부부의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 소식란에 게재된 전문을 참고해 주세요.)

Change 우리안에 시작된 변화 5월말 2박 3일의 청소년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기간 3주 동안 매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뜨거움으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 청소년부 친구들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와 눈물이 터지고 서로 용서하며 기도해주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도 매일의 모임은 계속되었고, 큐티 나눔과 기도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소음민원이 들어오고 각 가정에서 걱정을 할 정도가 되어, 매일의 모임은 주중 화, 목으로 줄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Joy 복음 전하는 기쁨, QT 하는 즐거움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오는 변화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일 것입니다. 전도가 기쁘고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주일 오후 바기오의 중심

가인 세션로드 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전도를 시작하면 어디선가 새로운 기쁨과 힘이 솟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됩니다.

One body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추수감사절 / 전도 축제 (11월)

여름 성경학교 (4월)



Family 가족 이야기 송현주 선교사는 2018년 4월에 쓰러져서, 위 운동장에 (위 무력증)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 여에 가까이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바기오로 돌아 온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지금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으나 사역현장에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큰 아들 종현이는 한국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둘째 종윤이도 2020년 3월에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국이지만 낯선 땅, 가족이 없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내 종찬이는 최근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부상을 입어 수술을 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9. 12. 3. 필리핀 바기오에서 김승곤, 송현주, 종현, 종윤, 종찬 드림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너희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2. 12월은 **결산과 예산**의 기간입니다. 예/결산 위원회(구민, 오정은, 최선운/재정, 김훈태/행정, 유동숙/감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모임을 가집니다.**
3.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하며 함께 전진합니다.
5. 박진성 집사의 장녀 **박다현(Joyce Park)** 양이 **대학졸업**을 축하합니다.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and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6. CUMC의 성탄축하예배에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7. **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연말 연시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9.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분들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과 이웃들)의 조속한 회복,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성찬예식 & Oikos 쉼도일
▶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부과 재정비

♥ **성령 충만** ♥ 오준하(12/2) 김훈태(12/19) 박다현(12/23) 홍은성(12/26) 유덕하(12/28) 최선운(12/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12/8	12/15	12/22	12/29
		최선운집사	고순제전도사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예배	금요일예배기도	12/13	12/20	12/27	1/3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오정은집사	구 민집사
예배	주일헌금위원	12/8	12/15	12/22	12/29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예배	주일안내위원	12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 요한1서 2:1-6**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가장 친밀함 만남으로 가지는 지식은 단지 머리(지성)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아는 체험이다.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도의 삶과 존재의 일부분이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수록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더 많이 알아 가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형제자매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 / 요한1서 2:12-17

성경의 세상이란?

정욕(욕신과 안목)과 세상자랑으로 가득한 멀리 할 대상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으로 섬겨야 할 대상

유한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대신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시다.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 / 요한1서 2:12-17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좋은 뜻으로 쓰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뜻한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 우리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반면에 나쁜 뜻으로 쓰이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뜻한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 예수님이 속하지 않으시고 성도가 속하지 않아 사단이 왕 노릇하는 악의 세력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안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의미의 세상이다.

이 악한 의미의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욕신의 정욕이다. 여기서 욕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체가 아니라 영과 대립되는 죄의 기관으로서의 욕을 의미한다. 따라서 욕신의 정욕은 죄로 인해 생겨나는 욕망이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욕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더 강한 자극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불일 듯 일으키는 것들이 더욱 많이 개발되고 극대화되고 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잠시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허영심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자랑은 하면 할수록 속이 허전해진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랑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어두움 이기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에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 둘째,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더욱이 그것들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악한 정욕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 세상 것들을 사랑하느라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들 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 것이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장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December 15,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나눔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하나님께 말씀드려
늘 듣고 계시니까

“주님 저에게서!
은 달인 것이
이유이유 예배입니다.”

“이 온전
내가 배워
이런말이다.”